2022년 7월 8일 금요일



### 양기훈의 제주마을 백리 백경 -가름 따라, 풍광 따라

<6> 성산읍 신양리

# 공존의 가치를 현실 속에 구현해낸 마을

마을 이름 자체에서 진취적인 마인드가 느껴진다. 새로운 태양-신양(新陽). 제주 의 동쪽 바닷가에서 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, 바다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해 는 늘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모양이다. 새 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공동체 의 터전을 지키고 가꿔온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끊임없는 도전의식을 발견하게 된다. 마을의 역사는 오래지 않으나 괄목 할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은 그러한 마을 분위기에서 비롯하였으리라.

128년 전, 고성리에서 정씨와 김씨 등 몇 명이 섭지코지가 가까운 곳으로 이주 하여 어로작업 중심의 생활터전을 마련하 면서 설촌이 시작되었다고 한다. 최초의 이주 이후 15년이 흐른 1909년의 기록에 의하면 50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으니 짧 은 시간 내에 마을의 면모를 갖춘 놀랍고 독특한 마을이다. 단기간에 인구가 유입되 어 마을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은 반농반어 가 가능한 환경적 요인이 가장 컸을 것이 라고 마을 어르신들은 말씀하신다. 당시 마을 명칭은 '방뒤'라고 했다. 포구 이름 이 방두포(房斗浦)였기에 거기에서 유래 하였다는 것이다.

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증조부 때부터 이룩해낸 4대 120여 년의 성과가 현재 신 양리의 모습이고 보면 성장 속도로는 최 고 최강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마을이라고 해야겠다. 4세대라고 할 수 있는 30년 전 부터 섭지코지와 신양해수욕장이라고 하 는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3차산업과 연계 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슬기롭고 끈 기 있게 현재의 모습을 이끌어냈다. 그 비 결을 묻자 정광숙 이장은 망설임 없이 "공 존"이라고 답했다.

신양리 속에서는 농어민도 상인도 재벌 들도 모두 공존하고 있다는 마인드. 그 마 음이 깨지지 않는 한 서로 상생협력하며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. 마을공동체가 어떤 페 러다임을 가지고 진취적일 수 있는 가를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라고 해야겠다. 새로 운 태양-신양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변화에 대한 수용, 흡수 방식에 있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.

농어민 중에 관광 관련 부업을 하고 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.

있는 사람이 백 명 안팎이고 관광서비스 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식당과 숙박 관련 업소가 리 단위 마을에 70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 빠르게 관광을 매개로 도 농복합지역으로 탈바꿈 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.

이겨내야 할 시련이 있었다. 신양해수욕 장에 매해 밀려드는 파래와의 전쟁. 마을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은 살 아온 경험에 입각한 것이었다. 바깥 방파 제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이러지 않았다는 것. 1994년부터 1999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바깥 방파제가 조류의 흐름에 결정적인 방해를 하여 파래 개체수의 폭발적인 증 가를 가져왔다는 것이다. 결론은 철거가 답이라는 주장, 신양해수욕장은 생존과 직 결된 곳이 되었다. 이미 관광산업의 영향 권으로 진입해버린 마을 생업구조로 볼 때, 해수욕장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생존권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 되 기 때문이다. 분명 과학적 토대 위에서 환 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했을 것 이다.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부실용역이었다면 그 책임은 이 사업을 추진한 기관에 있다.

과학적 분석이 틀린 답을 가지고 바깥 방파제를 건설해 지금의 현상이 나타났 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철거가 답이 다. 관광마을을 미래 비전으로 가지고 있 는 마을공동체 입장에서 이 문제 해결 없 이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. 바닷물의 흐름 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제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. 요행을 바라는 것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현상적으로 결론이 난 이 문제를 다시 연 구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. 하루속히 주 민들의 민원이 받아들여져서 바깥 방파 제 철거라고 하는 행정적 실천이 있어야

기억한다, 90년대 초반까지의 신양해수 욕장은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다. 하루 속히 옛 명성이 회복 될 수 있도록 새로 출범한 도정이 마을주민 생존권 차 원에서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. 바깥 방파제 문제는 마을공동체 입장에서 분명 재앙이다. 원인을 제공한 곳에서 더욱 적 <시각예술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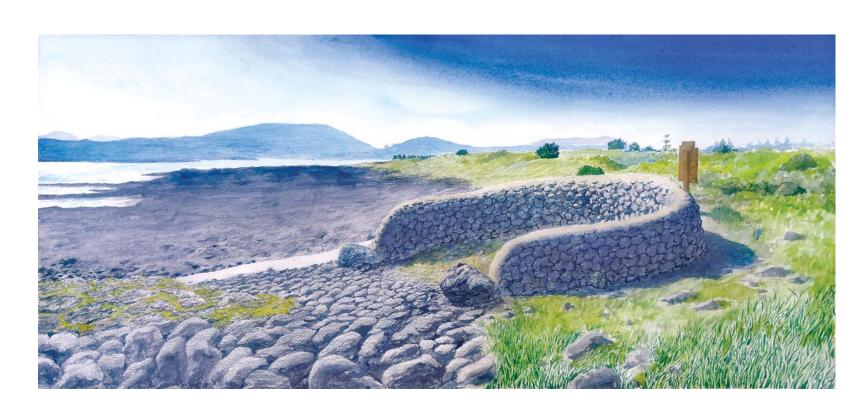


#### 공존의 문을 열고

<수채화 79cm×35cm>

새벽부터 짙게 덮고 있던 해무가 오후 들 면서 북쪽으로 밀려나 구름인 듯 멀리 자 리 잡은 날. 서쪽으로 기운 해가 더욱 눈부 시게 마을을 비춘다. 남쪽 해안 도로에서 포구들을 지나 주거 공간이 시작되는 곳으 로 진입하는 곳이다. 백 년의 시간이 공존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. 설촌 초기에 개척하며 쌓은 돌담들이 바닷가로 향하고 있고, 새마을운동 시기에 초가집 지붕을

슬레이트로 바꾼 가옥형태와 숙박시설로 보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건물들. 도로 바 닥 맨 앞에 배치된 맨홀뚜껑은 정주여건이 도시 기능을 충족하고 있음을 상징한다. 신양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공존의 형태로 다양성을 유지시킨다. 배치된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시각적 풍요를 심 포니오케스트라의 악기들처럼 느끼며 우 월한 하모니를 도출하려 하였다. 그리는 내내 떠나지 않은 주제의식은 공존의 문이 어떤 형태일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였다. 그러던 중에 떠오른 영감을 상상화 요소에 서 가져와 풍경 속에 그려 넣고 말았다. 문 이라고 하는 것은 열고 닫는 본질적 기능 이 있어야 하는 것이로되 공존의 문은 그 러한 것이 없어야 한다. 길이 곧 문이 되는 세상. 다양성을 상징하는 색으로 표시된 영역 공간이면 충분하다. 바닥에 채색된 선들의 논리다. 신양리 마을공동체가 추구 하는 이념을 풍경 속에 담아내는 작업을 통하여 미력한 환쟁이의 보람을 크게 느낀 다. 삶이 숨 쉬는 소박한 길, 마을 안쪽을 향하고 있으니 이 공존의 문을 지나면 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.



#### 섭지코지에 오등애불턱

<수채화 79cm×35cm>

고무 잠수복이 없던 시절, 겨울바다에 태 왁을 구덕에 지고 물질 나온 해녀들이 옷 을 갈아입고 바다로 나가던 곳. 한쪽에 땔 감이 조금 준비되어 있어서 물질을 하고 나온 해녀들이 싸늘하게 언 몸을 녹이려고 불을 피워 모여 앉아 서로를 위로하며 나 누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다. 북쪽으 로 담을 쌓아 추운 바람을 막은 구조다. 놀 랍게도 섭지코지에만 열여덟 개 넘는 불턱

이 있다. 원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있지 만 형태를 잃은 것도 상당수. 불턱의 이름 들 속에 제주인의 언어정체성이 짙게 배어 있다. 빌레불턱, 성그랭이불턱, 조랑개불 턱, 방애깨불턱, 구시개불턱, 작지불턱, 복 당여불턱 등 섭지코지 해변을 따라 이렇게 많은 불턱이 존재했던 것은 해녀들이 생활 의 터전으로 바다와 함께 동고동락했음을 의미한다. 선택의 여지가 없을 법한 삶 그 시간과 공간들이 문화로 자리 잡는다. 대 부분 그렇게 살아가니 서러울 것도 없는 숙명과도 같은 당연함 속에 누적된 불굴의 의지를 해녀들의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된 다. 이러한 정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. 부끄러운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해녀문화 속 '불턱'이 지방문화재의 반열에도 오르 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. 봉수대나 연대, 비석과 같은 문헌 기록과 타지역의 사례와 견주어 지정하는 것이 지방문화재의 논리 라면 문화의 본질인 정체성은 설 자리가 없는 곳이 된다. 신양리 섭지코지는 불턱 문화의 보물창고다. 하루속히 발굴 복원해 문화재 지정이 돼야한다.

#### "최고의 맛과 서비스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."





양만배

양만배 조리기능장(Master Chef)이 어머님의 손맛처럼 만배(萬倍)로 정성 (精誠)을 다하여 마련한 만배성한정식 (萬倍誠韓定食)이 색다른 맛으로 보답 하겠습니다.

예약문의 Tel. 712-6800 제주시 아연로 484-9(아라1동)

# 2층 만배성한정식 코스요리(11:30 ~ 22:00)

상견례, 칠순, 팔순, VIP접대, 각종 연회 및 모임 등을 행사 취향에 맞는 메뉴를 마련하였습니다.



馬A:1人 **75,000** 궁중해장국효종갱 14,000원 A:1人55,000 B:1人45,000 C:1人35,000

왕갈비곰탕 14,000원 인삼꼬리곰탕 17,000원 도가니탕 14,000원 점심특선 한정식 소머리곰탕 10,000원 1人 25,000 소불고기 12,000원 (도민할인가 → 22,000원)

식 사 류

※ 모든 요리에는 갓지은 즉석가마솥밥이 제공됩니다.

## 1층 만배성 <mark>밥집</mark>(11:00~17:00)

결혼 피로연, 돌잔치 100명이상 행사 가능 (사전예약 받습니다) 문의 712-6800

#### 피로연, 돌잔치 메뉴

불고기 정식 17,000원 소불고기 + 돼지고기, 순대, 두부 + 잡채 + 반찬5종 + 밥, 국

갈비탕 정식 17.000원

갈비탕 + 돼지고기, 순대, 두부 + 잡채 + 반찬5종 + 밥

17,000원 성게국 정식 성게국 + 돼지고기, 순대, 두부 + 잡채 + 반찬5종 + 밥

**윗하시는 메뉴 또는 메뉴 추가시 상담 후** 가격 조정 가능합니다.